

## 제주도지방의 선사문화와 동굴·바위 그늘 주거지

李滿圭\*·康昌和\*\*

### A preliminary study of prehistoric tunnel-dwelling sites and rock-shelters in Che-Ju Island, Korea

\*Chung-Kyu Lee and \*\*Chang-Wha Kang

#### 요 약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에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진 동굴입구나 움푹 들어간 바위 절벽밑의 바위그늘을 이용한 주거지 유적이 제주도 신석기시대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후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주거지는 캠핑지역으로 변한 증거가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해안가와 하천에 따라 동굴입구 또는 용암터널이 많이 발달하여 화산도로서의 특징이 있으며 이들이 선사시대의 인류에 의하여 사용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

#### ABSTRACT

Geologically speaking, many lava tunnels and caves are characteristic geomorphic features in Che-Ju Island. Especially, cave-ins are found along cliffs of shoreline and streams.

The prehistoric early inhabitants in the island used the tunnels and cave-ins as their major shelters from palaeolithic period to the iron period (AD300-600).

These tunnel-dwelling sites and rock-shelters are unsidered to be long-term shelters from the palaeolithic period to the neolithic period. However, these shelters and sites might be changed as temporary camping sites from the bronze to the iron period.

---

\* Department of History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Island, Korea \*\* Y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논하고자 한다.

### 序 論

지금까지 알려진 신석기시대 이후 우리나라 선사시대 집자리는 몇 예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움집이다. 제주도의 경우도 발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고된 바 없지만, 생활유적지라 생각되는 유물산포지가 도처에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야외에 선사시대 움집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석기시대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진 동굴 입구나 움푹 들어 간 절벽 밑 바위그늘을 이용한 주거지 유적이 제주도에는 신석기시대 이후 상당한 기간 지속하였음이 1985-1986년의 제주대학교 사학과팀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sup>1)</sup>

제주도 여러 곳에서 확인된 이러한 유적지는 다른 지방에선 보기 어려운 제주도의 독특한 지형 및 기후환경이 이끌어낸 이 섬의 先史人들의 주거양식으로 주목되며, 앞으로 더 많은 유적이 발견되리라 예상된다.

이 글은 이러한 제주도 동굴 및 바위그늘 유적에 대해, 지난 2년동안 조사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선사시대에 있어 제주도지방 주거문화의 한 측면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준비된 것이다.

이중 정식발굴조사를 거친 것은 한 유적 뿐으로 나머지는 지표조사에 의한 것으로, 미흡한 줄 알면서 앞으로의 조사방향의 準據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 글을 내놓는다.

앞서도 말했듯이 제주도에 있어 동굴 및 바위그늘유적은 여러시기에 걸쳐 지속되었음과 동시에, 각시기별로 동일 유형의 출토 유물을 내는 다른 유적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바, 이들 유적·유물을 통하여 알려진 전체적인 文化財를 파악하여야만 제주도 선사문화에서의 동굴·바위그늘주거문화의 位相이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각 시기별로 지금까지 구명된 제주도 선사문화를 전체적으로

### 제주도의 선사문화(그림1·2)

#### 1 구석기시대

제주도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보고된 것은 북제주군 涯月邑 於岾里 빌레못동굴 유적과 서귀포시 천지연 유적 두군데로<sup>2)</sup> 각각 TUNNEL-DWELLING SITE와 ROCK-SHELTER로 이 글에서 다루는 대상이다. 둘 다 鄭永和 교수에 의해 조사된 것으로 전자는 중기 구석기시대, 후자는 후기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 두 유적은 충분한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거쳐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구석기 문화의 분명한 究明을 위해서는 완전한 석기의 組相을 보여줄 수 있는 유적의 발굴과 제4기의 지질학, 동식물상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소망스럽다.

#### 2 신석기시대

제주도 신석기문화에 대한 확실한 구명은 1986년 북제주군 朝天邑 北村里 바위그늘유적의 정식발굴조사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 유적에 대해서는 이미 1973년 文基善 교수가 보고한 바 있고, 그 보고문에는 신석기시대 押引기편 1점이 소개되고 있어 이 시대의 것임이 예상되던 터였으나,<sup>3)</sup> 제주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이 유적의 최하층이 신석기시대층임이 분명하게 밝혀졌다.<sup>4)</sup>

이 곳에서 출토된 토기는 전체모양이 포탄형을 이루는 빗살무늬토기계통이지만 口練部에만 押捺점렬무늬가 있거나 二重口練土器 형식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형식의 토기가 남해안 여러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남해안 지방의 이 토기 출토 유적 및 층위의 방사선 탄소연대가 B.C. 2000-1000인 것을 고려할 때, 북촌리 유적의 신석기문화층도 후기의 이 연대의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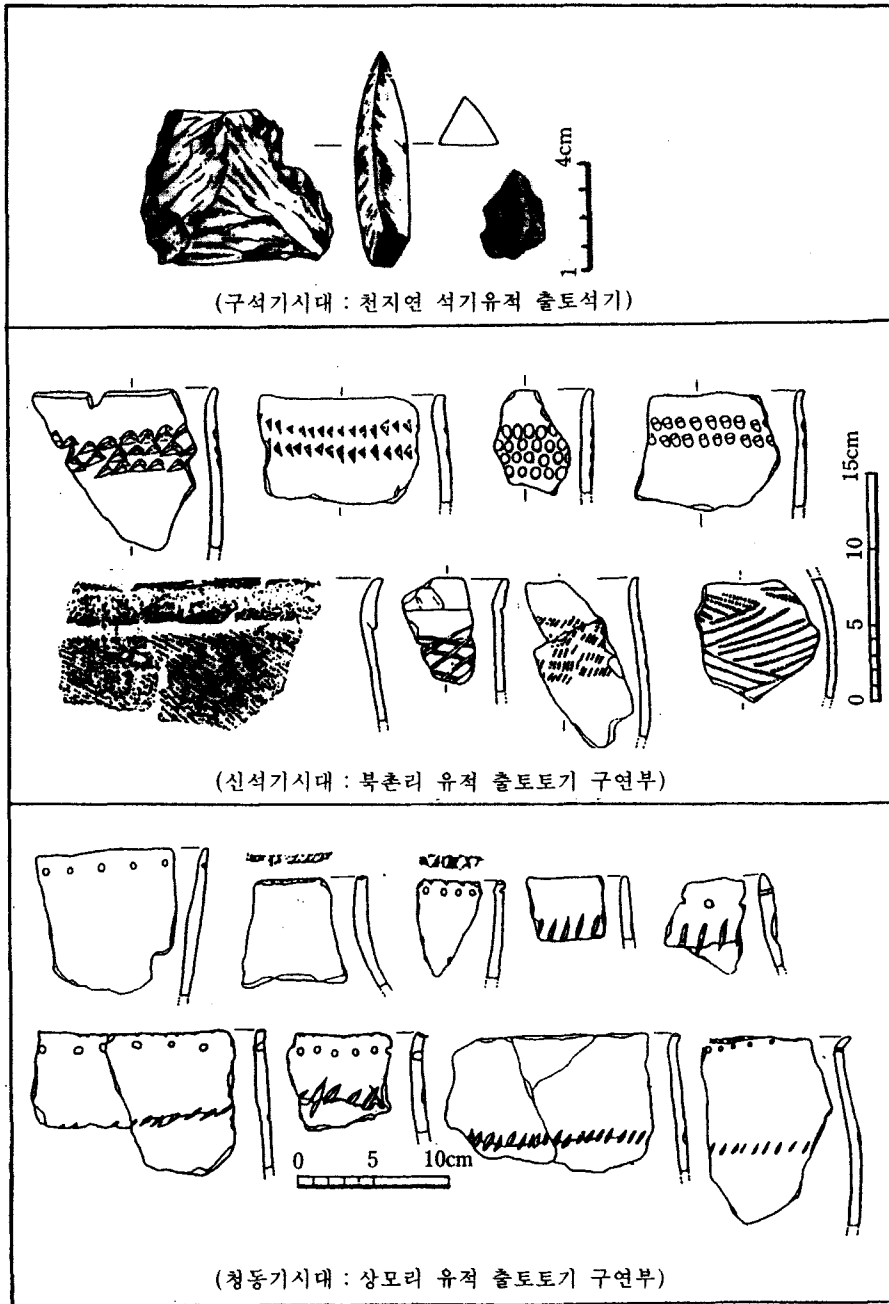


그림 1. 제주도 각시대 출토유물 I.

로 추정되는데, 현재 방사선 탄소연대 분석 중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제주군 翰林邑 月令里 한들굴 유적도 알려진 것은 오래 전이고, 1983년 鄭永和 교수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sup>5)</sup> 최근에 李

淸圭가 재답사하여 북촌리 것과 같은 형식의 압인 점렬무늬토기와 골각기를 수습함으로써 이 유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북촌리 유적처럼 신석기시대부터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 3 청동기시대

우리나라에서 청동기시대라 하면 瑟瑟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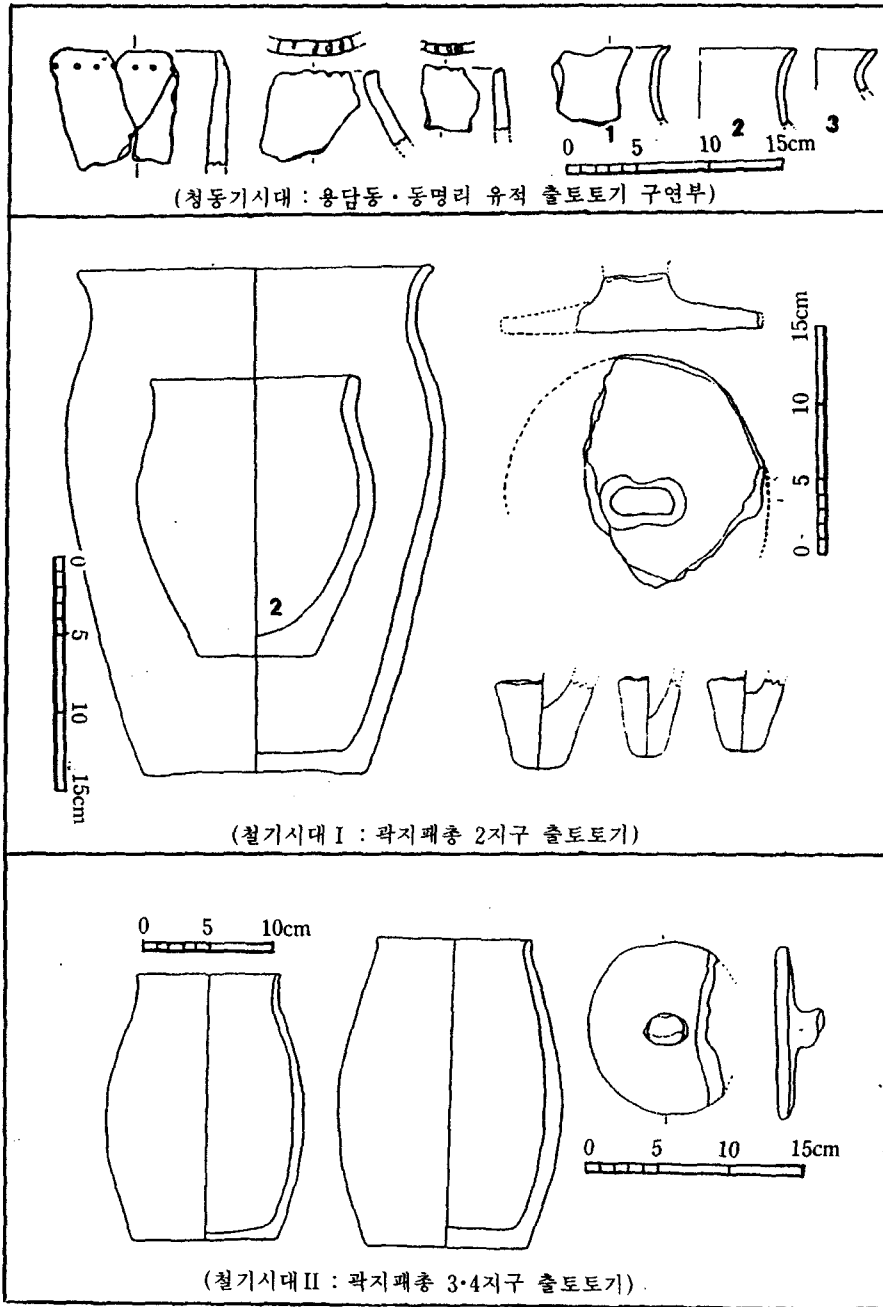


그림 2. 제주도 각시대 출토유물II.

銅劍·粗文鏡을 標識遺物로 하는 시기(B.C. 1000-300)이지만,<sup>6)</sup> 청동유물이 발견된 바 없고 다음의 초기철기시대(B.C. 300-0)에 속하는 토기 및 금속유물 또한 분명하게 알려진 바 없는 제주도에서는 이 두 시대의 개념을 그대로 따르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제

주도에는 남한지방의 청동기시대에 소속되는 것으로 알려진 공렬토기문화가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청동기시대라 하고 기술한다.

공렬토기가 발견된 유적은 제주시 龍潭洞 일성부락 墳墓유적, 북제주군 애월읍 郭支里 패총, 조천읍 북촌리 바위그늘유적, 한

림읍 東明里 유물산포지유적 및 남제주군 大靜邑 上慕里 산이수동유적등 5개소이다.

상모리 유적은 1985년 李清圭에 의해 확인된 해안유적으로, 패총과 생활유적지가 있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무문토기는 우선 粗質 무문토기와 魔研토기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고, 전자는 다시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구연부에 공렬무늬를 눌러 장식하거나, 입술면에 톱날같은 골무늬를 만든 것으로 함경도지방에서 남한지방으로 퍼져나간 유형이다. 둘째는 구연부를 이중으로 하고, 그 부위에 짧은 빗금무늬를 연속 그어 장식한 이른바 팽이형토기로 평안남도, 황해도지방에서 성행하여 그 일부가 남한지방에 파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는 앞서 두 유형의 토기속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二重口練 및 연속 빗금무늬의 팽이형토기의 장식에 공립 혹은 골아가리 장식이 덧붙여진 유형이다.

이 세제 유형은 경기도 여주군 欣巖里 및 충청북도 청주시 內谷洞 유적 등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러한 무문토기가 상모리 유적에서 발견됨으로 해서 당시 제주도 무문토기는 남한지방에서 유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연대는 같은 유형에 속하면서 이른 형식의 무문토기가 출토하는 혼암리 유적이 B.C. 7-5C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그보다 늦은 B.C. 5-3C경으로 생각이 되나 보다 확실한 것은 금후 검토할 문제이다.<sup>7)</sup>

곽지리 패총, 용담동 분묘유적, 북촌리 유적, 동명리 유적에서 발견되는 무문토기 형식을 보면 상모리 유적의 첫번째 유형에 속하는 순수 공렬토기와 골아가리토기 그리고 마연토기 뿐이다.

곽지리패총의 경우 철기시대(1)의 문화층 아래 아래층에서,<sup>8)</sup> 북촌리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문화층 바로 위, 그리고 철기시대문화층 아래에서 각각 층위적 확인이 됨으로써, 제주도 공렬토기문화의 練年的 위치가 명확하게 부각된다.

이러한 제주도 여러 유적이 무문토기문화

에 대해서 이 청구는 그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sup>9)</sup>

(가) 상모리 세제 유형의 공렬토기 및 팽이형토기 복합형의 무문토기 유입단계(상모리 유물산포지유적)

(나) 위의 복합형토기 제작·성행단계(상모리 패총유적)

(다) 복합형토기 소멸 및 순수 공렬·골아가리토기 잔존단계(용담동·곽지리·북촌리·동명리 유적)

제주시 용담동 분묘유적은 한 지점에 청동기시대 무덤群과 철기시대 무덤群이 함께 있는 유적으로 전자는 고인들의 하부 구조로 생각되는 타원형 石郭墓 3기, 후자는 석곽묘 1기, 甕棺墓 6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개의 무덤군은 중앙에 동서로 연결된 길이 18M의 石列을 사이에 두고 각각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다.<sup>10)</sup>

출토유물을 보면 전자에서는 공렬 및 골아가리토기와 마연토기편이 있고 후자에서는 다량의 철제유물의 유리구슬 등과 함께 출토되어, 각각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1)의 선후관계가 뚜렷하다.

#### 4 철기시대(1)

이 시대는 이른바 原三國時代라해서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중간단계가 된다. 남한지방에서는 三韓의 小國들이 각기 중국 漢나라 철기문화보다 먼저 적극 수용한 나라를 중심으로 서서히 통합되어 고대국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단계라 하겠다.

제주도에 경우도 중국의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보이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州胡라 하여 원거리 무역을 통하여 발달된 철기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이러한 문헌의 기록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 1928년 제주시 山地港 축조공사 때 발견된 漢나라 화폐·銅鏡 등의 유물과 1984년 제주시 용담동에서 발굴된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漢式 철제무기 및 유리구슬 등의 유물이다.

산지향에서 발견된 유물은 漢式 동경파편

2점, 동검의 부속장식 1점과 함께 중국 新나라 王莽 때(8-23년)의 것으로 생각되는 五銖錢 4매·貨泉 11매·大泉五十 2매·貨布 1매 등의 화폐유물로서,<sup>11)</sup> 이러한 유물은 당시 우리나라 및 일본 구주지방의 교역 중심지에서 발견된다.

용담동 분묘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은 길이 84CM의 長劍 1점·창 1점·플형무기 2점·주조도끼 2점·소형도끼 2점 그리고 수십점의 扁平三角兩翼鐵 등의 철제유물로서 역시 중국 漢代 유물이다.<sup>12)</sup>

이처럼 본격적으로 금속문화를 수용하는 철기시대(1)에 제주도 유적은 用水 및 식량 획득에 유리한 해안지방을 따라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40여 지역 100여 지점이 넘는다. 이러한 유적의 전과 다른 급증현상은 이 시대에 제주도 인구가 증가하고 촌락이 발달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오늘날 볼 수 있는 해안지방 큰 마을의 상당한 숫자가 바로 이때부터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시대의 제주도 토기는 제주도식이라고 불러도 좋을 두터운 기벽의 廣口外反口練무문토기항아리로 대표된다. 바닥에 비해 입지름이 훨씬 넓고, 구연자체가 밖으로 크게 벌어졌으며, 바닥의 바깥 언저리가 축약되지 않은채 밋밋하게 올라간 것이 특징인데 狹口패총 2지구에서 발굴·확인되었으며 郭支式이라고도 불린 바 있다.<sup>13)</sup>

한편 제주도 지방 곳곳에 확인되는 고인들은 제주도식으로 변형·발전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축조시작은 전시대부터이겠지만,<sup>14)</sup> 성행한 것은 이 시대에 와서인 것임이 광평리 고인돌군유적이 출토유물과 제주시 龍潭洞·外都洞 고인돌발굴조사에 의해 밝혀졌다.<sup>15)</sup>

### 5 철기시대(2)

이 시대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고구려·백제·신라·가야가 고대 왕권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陶質土器 및 발달된 철기문화 그리고 거대한 封墳 혹은 매장시설에 다량의 각종 부장품을 갖춘 高墳文化의 시대가

다. 대체로 300-600년이 중심 연대로서 제주도는 문헌기록에 耽羅國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때이다.

이 시대에 속하는 제주도 유적은 고분·패총 등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발굴조사가 된 곳은 狹口패총 3·4지구 뿐이다.

이곳에서 출토한 대표적인 토기유물은 도질토기 및 적갈색 硬質의 深鉢形토기인데, 후자는 지금까지 다른지방에서 알려진 바 없는 제주도 특수형으로 앞선 시대의 광구외반구연무문토기를 개량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된다.<sup>17)</sup>

보다 경질이면서 정선되고 얇은 器壁의 胎土에, 입지름과 바닥지름이 거의 같으며, 바닥을 따로 만들어 胴體部와 결합시키고 전체적으로 소형화된 것이 앞선 시기의 제주도식 무문토기 항아리와 구별된다.

그러한 적갈색경질토기가 지금까지 제주도내에서 발견된 유적을 살펴보면 거의 전시대 유적지와 대체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실한 것은 금후 구명될 것이다.

### 동굴 및 바위그늘 주거지의 유형

움집은 사람의 손에 의해 造營된 것이지만 이 글에서 소개하는 동굴유적 및 바위그늘 주거지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질학적인 원인으로 형성된 것이다(그림3).

이러한 유적지가 제주도에 많은 것은 한반도 육지부와 달리 지질연대로 오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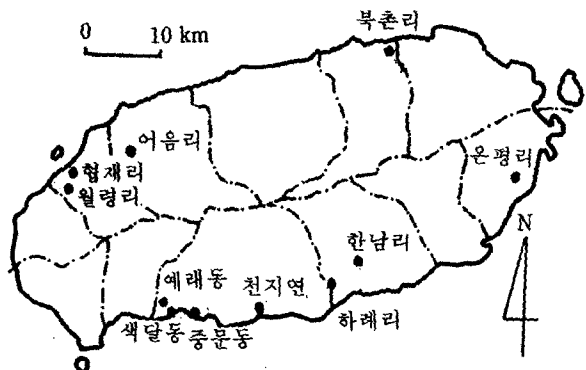


그림 3. 제주도 동굴·바위그늘 주거지 유적분포

은 신생대 제3기말-4기 전반에 화산작용으로 인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용암이 흘러간 동굴 천정부가 지표면과 가까와 약해져 무너지면서 형성되거나, 무른 현무암 절벽이 하천 혹은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그 위치를 보면 해안단구 하단부에 있어 현재의 해안선에서 30M 거리 미만에 있는 유적, 하천 절벽에 있는 유적 그리고 해안에서 500M 이상 내륙으로 들어간 유적이 있는데, 전2자는 당연히 침식작용에 의한 유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다른 유적의 위치는 주변환경에 대응하는 식량획득행위 혹은 생활에 일정한 조건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다시 길게 형성된 동굴의 입구 가장 자리에 유적이 형성된 동굴주거지(TUNNEL-DWELLING SITE)와 절벽이 움푹 패인 곳에 형성된 바위그늘주거지(ROCK-SHELTER)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자는 앞서 용암동굴의 경우뿐이지만, 후자는 침식작용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바위그늘 주거지는 해안절벽 및 하천변에 위치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전자는 내륙에만 분포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11개 유적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 동굴주거지(TUNNEL DWELLING SITE)

### 1 어음리 빌레못굴 동굴주거지<sup>18)</sup>

#### A. 유적

유적은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2리 마을에서 한라산 쪽을 1.2KM 가량 올라가면 나오는데, 대략 해안에서 직선거리 4KM, 해발 200M 정도 되는 완경사면에 위치한다. 유적의 주위는 잡초들이 무성하고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등성등성 자라고 있다.

빌레못 동굴은 용암이 흘러 형성된 일종의 터널식 동굴로 유적지는 동굴 입구에서 약 900M 정도 들어가야 나온다. 원래 당시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은 지금은 함몰되어 큰 돌들로 막혔으며 그 옛날 입구로 보이는 곳에 불 뎀 흔적이 남아 있다 한다.

1973년 鄭永和 교수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층위는 다음과 같다

① 표토층은 직경이 30CM 정도 되는 현무암 덩어리들이 깔려 있고, 층위 두께는 30-50CM 정도이다.

② 그 다음 제1문화층은 층위 윗 부분에서 동물화석들이 발견되어 타제석기도 출토된다. 층위 두께는 2-95CM의 변화를 보이며, 고운 진흙과 잔돌, 때로는 직경이 20CM 넘는 큰 돌도 섞여 있다.

Table 1. 11개 유적의 유형별 정리

형상	입지조건	유적지	형성원인
TUNNEL-DWELLING SITE (동굴주거지)	내륙	涯月邑 於晉里 유적	용암
	내륙	翰林邑 月令里 유적	용암
	내륙	翰林邑 狹才里 유적	용암
	내륙	城山邑 温平里 유적	용암
	해안	서귀포시 温達洞 유적	침식
ROCK-SHELTER (바위그늘주거지)	내륙	朝天邑 北村里 유적	용암
	내륙	南元邑 漢南里 유적	용암
	하천변	서귀포시 천지연 유적	침식
	하천변	서귀포시 獍來洞 유적	침식
	하천변	南元邑 下禮里 유적	침식
	해안	서귀포시 中文洞 유적	침식

③ 제2문화층은 직경 10M 미만의 잔돌과 고운 진흙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층이 압력으로 비교적 단단하다. 이 층위에서는 타제 석기만 출토되고 그 아래층은 암반이다.

#### B. 유 물

출토된 석기유물은 모두 105점으로 주로 박편석기들이고 큰 석기는 7점 뿐이다. 박편석기는 모두 7가지 종류로, 굵개 26점, 칼 12점, 첨기 2점, 송곳 1점, 부리형 석기 1점, 훔날 2점, 톱니날 1점이 수집되고 큰 석기는 썩개(Pick) 3점, 박편도끼(Cleaver)가 4점으로 나머지는 박편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석기는 박편석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큰 석기도 함께 발견되어 전체적으로 중기구석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발견된 동물화석은 적어도 50만년전에서 1만년전에 살았으며, 중국의 주구점에서 중기 홍적세에 해당하는 지층에서 출토된 적이 있다고 하는 갈색곰(Ursus arctos)의 턱뼈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후기 홍적세에 번성했다고 하는 적록(Red deer: Cervus elaphus) 그리고 노루(Roe deer: Cervus capreolus) 등이 있다.

### 1 월령리 한들굴 동굴주거지<sup>19)</sup>

#### A. 유 적(그림4)

한들굴 유적은 일주도로변의 金陵里 마을에서 산간마을인 造水로 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1.2KM 정도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지점은 해안



그림 4. 월령리 한들굴 주거지 입구

에서 직선거리 1.5KM, 해발 80M의 소나무 숲이 덮힌 구름지대이다. 동굴의 전체 길이는 1.4KM이고, 그 입구의 천장 높이는 5M, 폭은 16M이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급격히 낮고 좁아져 30M정도 들어가면 한사람이 기어서야 겨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유적은 굴입구로부터 25M 안쪽까지이며, 입구 자체는 남쪽으로 트이고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큰 돌들로 상당부분이 가리워져 있다. 유적 한가운데 바닥은 암반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유물포함층은 동굴 양쪽 벽 가장자리로 가면서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간단히 테스트 핏트를 구획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CM 정도 두께의 모래층 아래에 유물이 포함된 시커먼 재층이 20CM 두께로 암반층 바닥 위에 쌓였는데, 유적의 규모에 비해 퇴적층의 두께와 면적이 얇고 작은 편이다.

#### B. 유 물(그림5)

출토유물의 대부분은 철기시대 이후의 토기편과 동물뼈, 조개껍질 등의 자연유물로 신석기시대의 것은 그와 혼재된 상태로 극히 적은 양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토기의 구연부편을 보면 앞서 북촌리 유적의 토기처럼 다소 外反한 구연부에 누르기 수법으로 장식한 삼각점렬무늬 형식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간격을 띠고 둥근 끝의 施文具를 살짝 회전시키면서 눌러서 만든 일렬의 점렬 무늬 형식도 있다. 이 형식의 토기는 걸면을 비스듬히 빗질 정면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밖에 역시 북촌리에서 출토된 긴 주걱모양의 골각기 1점과, 타원형 원판의 가로 한가운데에 홈줄이 나 있는 토제품 2점이 발견되었는데 용도는 확실하지 않다.

### 3 협재리 동굴 주거지<sup>20)</sup>

#### A. 유 적(그림6)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하며 鄭永和 교수가 처음 확인하였다. 협재굴 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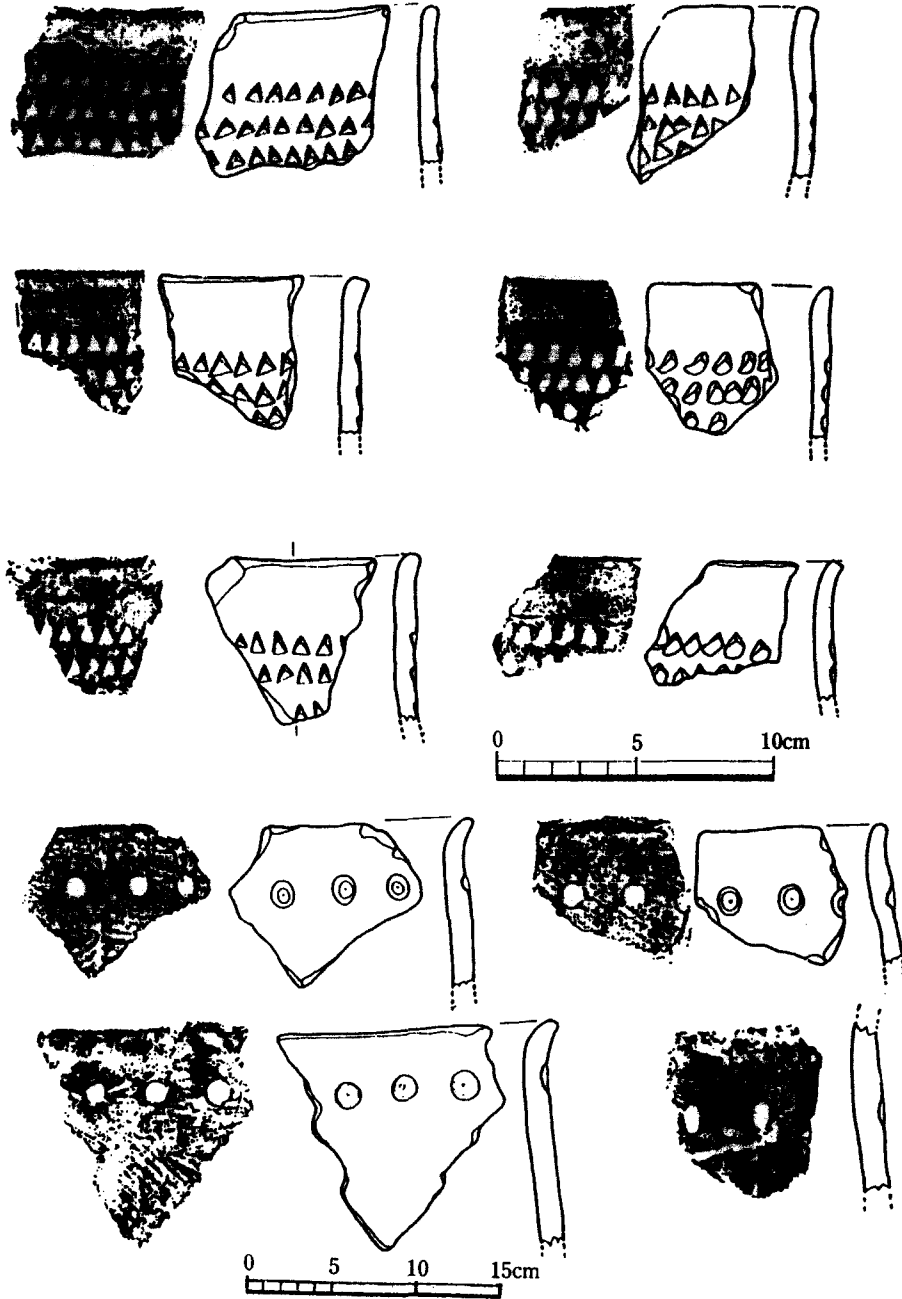


그림 5. 한돌굴 동굴주거지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 구연부편

담장을 끼고 올라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일주도로에서 300여M 올라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의 담장 안쪽 관광지 경내에 유적으로 들어간 굴 입구가 나온다.

굴입구는 해안에서 날아와 쌓인 모래로 사람이 겨우 들어가고 나갈 정도의 구멍만

남기고 막혀 있으나, 원래는 이 일대의 많은 동굴이 그러하듯이 크게 뚫려 있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리라 추정이 된다.

현재 해안에서 거리는 500M 정도이며, 鄭永和 교수가 197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적으로 이르는 동굴 입구는 6개가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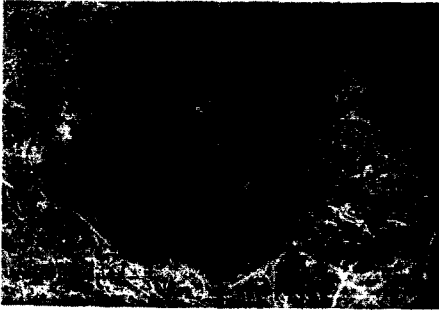


그림 6. 협재리 동굴 주거지 입구

입구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중앙홀에 유적이 자리잡고 있다. 그 규모는 길이 14.4M, 폭 10M 높이 3-5M 정도이다.

#### B. 유 물

여기서는 동물뼈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에는 소·말뼈도 포함되고 전복 등의 조개 껍질도 다량 출토되었다. 인공유물로는 철기시대(1)의 제주도식 혹은 광지식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조개·동물뼈 등이 녹아 석회질이 되어 토기겉면이 두텁게 씩워 굳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 4 온평리 동굴주거지<sup>21)</sup>

#### A. 유 적(그림7)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의 제주도 三姓神話의 관련 있는 婚姻池 동편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주변은 완만한 구름지대로서 해안에서 직선거리 1.5KM, 해발 60M의 위치에 있으며, 용암동굴의 천정부가 무너져 입구가 형성되고 은거지가 생겼다. 남쪽으로 트인 입구를 들어서면 세 방향으로 굴이 나 있는데, 그 중 맨 오른쪽 굴 가운데 홀 바닥에서 많지 않은 양이나마 토기유물이 수습되었다.

이 홀의 크기는 동서 5.3M, 남북 6.2M, 높이 1.3-1.8M이고, 바닥은 용암 암반층이 거의 그대로이고 일부 5-10CM의 얇은 두께로 흙이 쌓였을 뿐이다.

#### B. 유 물(그림9)

수습된 유물은 적갈색 무문토기편 뿐으로 굵은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되고 두께는 1-



그림 7. 온평리 동굴 주거지 입구



그림 8. 색달동 동굴 주거지 입구

1.7CM 정도로서, 구연부편·바닥편이 수습되지 않아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으나 광지패총 2지구 출토 郭支式 外反口緣 廣口무문토기 향아리 계통인 것으로 파악된다.

### 5 색달동 동굴주거지<sup>22)</sup>

#### A. 유 적(그림8)

서귀포시 색달동 해안 절벽 중턱에 있는데, 여래동과 색달동의 경계를 이루는 한천 하류에서 동쪽 해안 절벽을 따라 약 200M 정도 가면 나온다.

이 일대의 해안절벽은 서귀포시 서쪽에서부터 대정읍 和順里를 거쳐 한경면 高山里로 이어지는 제주도 남부 長大한 해안절벽의 일부로, 그 절벽 중턱 해발 25M 정도의 위치에 있다.

유적의 트인 방향은 남쪽을 가리키고 있고, 입구 동서길이 3.5M, 높이 3.7M이며, 굴의 안쪽까지 길이는 21M이다. 다른 동굴 유적이 용암동굴로서 길이가 몇 KM되는 것과 달리 解飾에 의한 동굴이면서 길이가 짧아 오히려 ROCK-SHELTER 유형에 가깝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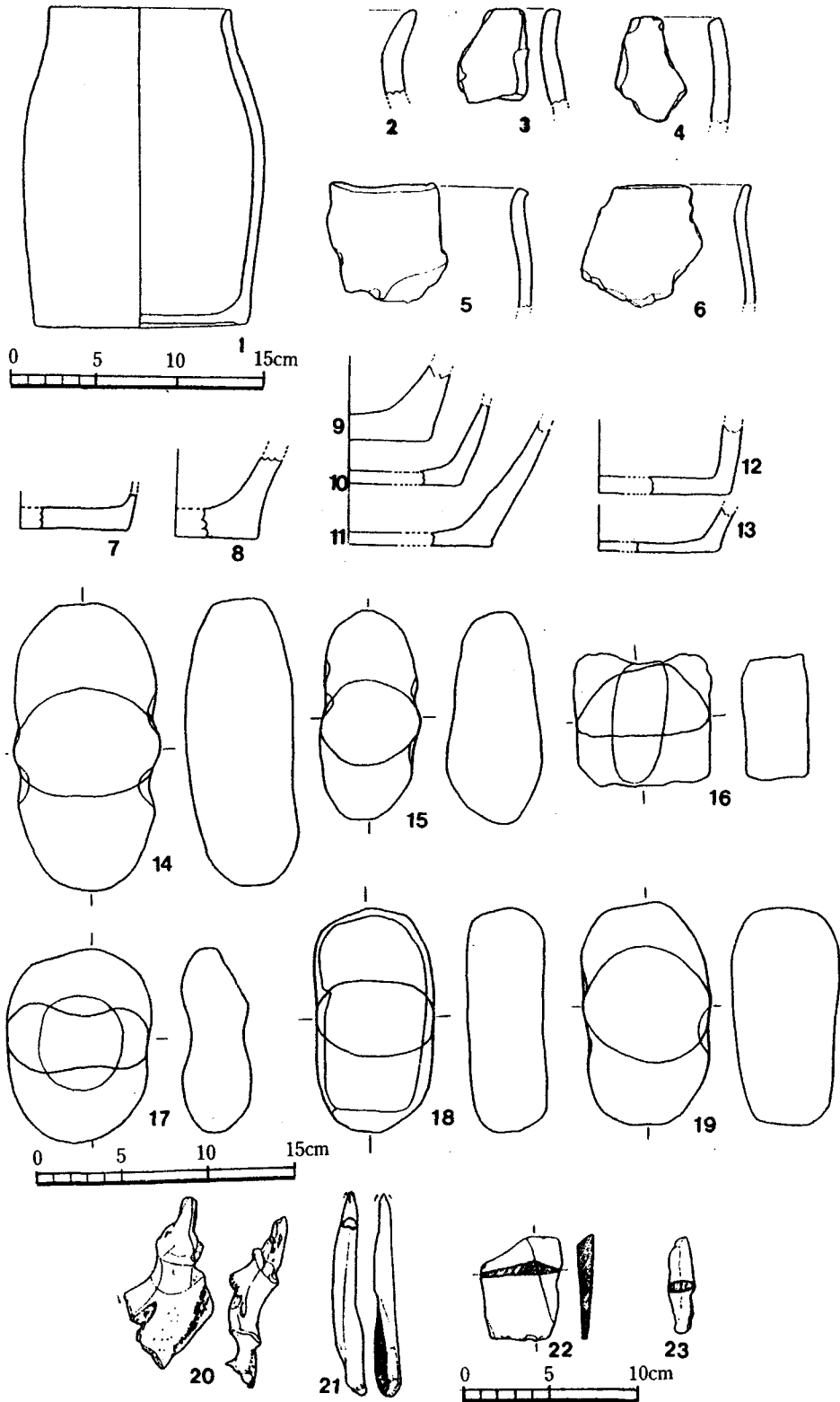


그림 9. 각지 동굴·바위그늘 주거지 출토유물

온평리 유적 : 8, 색달동 유적 : 2·7, 중문동 유적 : 9·10·11·22·23, 예래동 유적 : 1·3, 한남리 유적 : 5·6·12·13·20·21, 하례리 유적 : 14·15·16·17·18·19.

바닥은 상당한 깊이로, 점토로 된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고, 일부 TEST-PIT에 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퇴적층은 1M 정도까지 내려가고 바닥에는 잡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B. 유물(그림 9)

출토유물은 수점의 토기편 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광지폐총2주 광구의 구연항아리와 같은 형식이다. 한점의 바닥편은 철기시대(2)의 적갈색 深鉢形 경질토기형식에 속하는 것이다.

### 바위그늘주거지(ROCK-SHELTER)

#### 1 천지연 바위그늘주거지<sup>23)</sup>

##### A. 유적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지점에서 남쪽으로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유적이 있으며, 하천변의 양쪽 계곡중 남쪽으로 향한 절벽 밑 ROCK-SHELTER이다. 이 곳은 여름에 태풍이 불어도 피할 수 있고, 겨울에도 안온하게 지낼 수 있는 은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앞에는 민물이 항상 흘러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로등의 경제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적은 절벽 바위가 상당량 무너져 원래의 전체규모를 확인할 수도 없고, 유물도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층위상태를 알 수 없으나, 地表下 20CM에서 尖器 1점이 채집되었고 퇴적층위가 1.5M 정도 된다하므로 앞으로 정밀발굴조사를 통하여 이 유적의 성격이 명확해지리라 기대한다.

##### B. 유물(그림10)

이 유적에서 발견된 구석기 종류는 세가지로, 전형적인 긁개(Scraper) 1점, 첨기(Point) 1점, 흠날석기(Notch) 1점이 있고 이밖에 전형적인 톱날 8점, 박편 6점 등이 발견되어 석기의 특징과 함께 이 유적이 구석기시대후기에 속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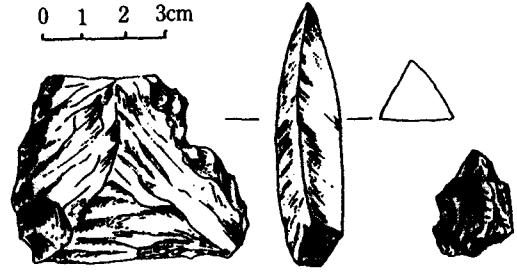


그림 10. 천지연 바위그늘 주거지 출토 석기 고 있다.

#### 2 북촌리 바위그늘 주거지<sup>24)</sup>

##### A. 유적(그림11·12·13)

유적은 북촌리 마을을 해안일주도로를 따라서 동쪽으로 150M 정도 벗어나면 남쪽으로 올라가는 비포장 도로가 나타나는데 이 길을 따라 300M 정도 올라가서 왼쪽에 유적이 있다. 해안에서 직경거리 600M, 해발 20M의 들판 가운데에 용암동굴의 천정부가 무너져 최대 직경 50M의 함몰지가 형성되었으며, 유적지는 그 동북쪽 절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을 마을 사람들은 속칭 고두기 언덕으로 부르며, 바위그늘 주거지의 정면길이는 11M, 천장 최대높이 2.5M, 입구에서 안쪽까지의 거리 3M로 입구는 정남향으로 트였다. 서쪽 바닥면은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암반으로 평탄면을 이룬 반면, 동쪽은 원래 무질서하게 천장에서 떨어져 내린 잔돌층 위에 인위적으로 잡석을 깔아 고르게 다듬었다. 이렇게 고른 동쪽의 위 여러 지점에 점정 재가 있었고, 갈판·갈돌 등의 製粉用 도구와 탄화된 열매씨앗이 다량 발견되어 이 구역에서 부업 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바닥층에서부터 쌓인 퇴적층위는 다음처럼 구분된다.

① 제1층 : 표토층으로 지하 15-25CM까지로 조개 및 동물뼈 파편의 비교적 많은 양이 섞인 흑갈색토층이다. 근래에 버려진 유물도 포함된 교란층이나 원래는 삼국시대 혹은 철기시대(2)의 문화층인 것으로 파악



그림 11. 북촌리 바위그늘 주거지 원경



그림 12. 북촌리 바위그늘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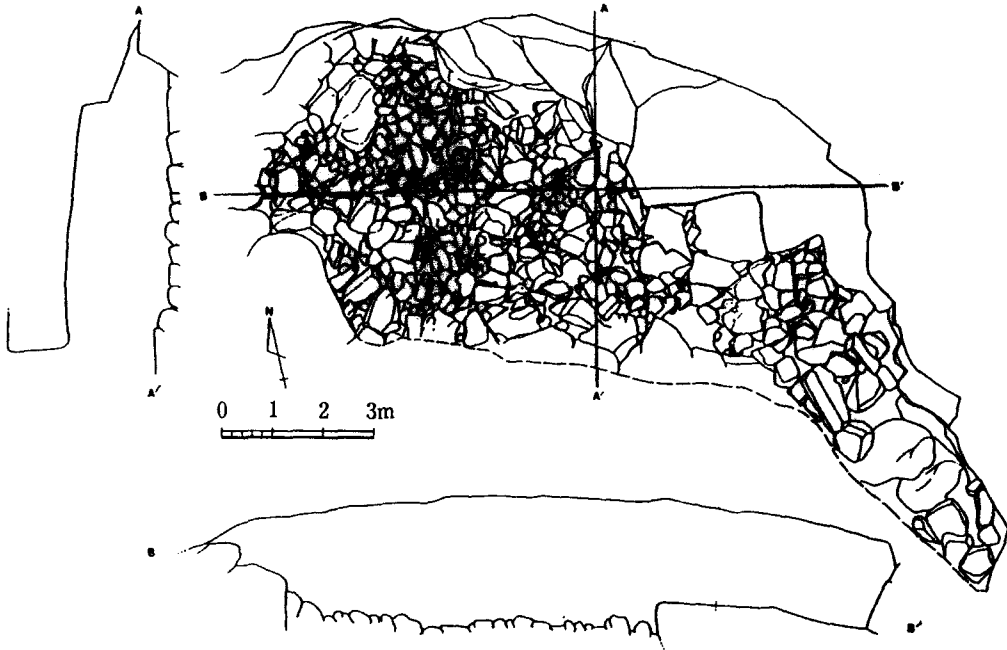


그림 13. 북촌리 바위그늘 주거지 실측도

된다.

② 제2층 : 갈색 사질토층으로 표토 아래 30-45CM까지로 역시 조개 및 동물뼈 조각이 많이 섞이고 광지패층에서 출토된 바 있는 철기시대(1)과 철기시대(2)의 무문토기 및 적갈색 경질토기 파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③ 제3층 : 표토 아래 35-55CM로서 다소 밝은 흑갈색 점토층이다. 조개 및 동물뼈는 적은 양이 섞여 있으며, 주로 철기시대(1)의 무문토기 파편이 출토되었다.

④ 제4층 : 표토 아래 52-72CM인 밝은 갈색 점토층으로서 조개편이 다소 3층보다

많아진다. 이 층위에서 인공유물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으나, 수점의 공렬토기편과 골아가리 무문토기편이 이 층에 소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제5층 : 맨 아래층으로 밝은 갈색의 사질토층이며 조개편은 화석처럼 서로 엉켜 붙었다. 표토 아래 67-83CM까지로, 신석기시대 유물이 원상대로 출토되며, 바로 밑 바닥으로는 신석기시대 당시의 주거 바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층위상태와 각 층위출토유물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유적은 신석기대에 사람이 거주한 이후로도 사람이 계속

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

**B. 유물**

앞서 보듯이 이 유적의 맨바닥층에서는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후대에 퇴적된 층위에는 무문토기시대 이후의 유물도 상당량 출토되었는바, 각 시기별로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석기시대 : 신석기시대 토기는 (a)압인 점렬무늬토기 (b)이중구연토기 (c)기타 토

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4).

(a)압인 점렬무늬토기 : 살짝 밖으로 벌어진 직립의 구연부에 2-4열의 점렬무늬가 누르기 혹은 押引手法로 장식된 것이다. 完形의 출토례가 없어 바닥형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같은 유적에서 출토한 신석기시대 토기 바닥편이 둥근 것을 보면 남한 지방과 같은 圓底 半卵形의 器形을 가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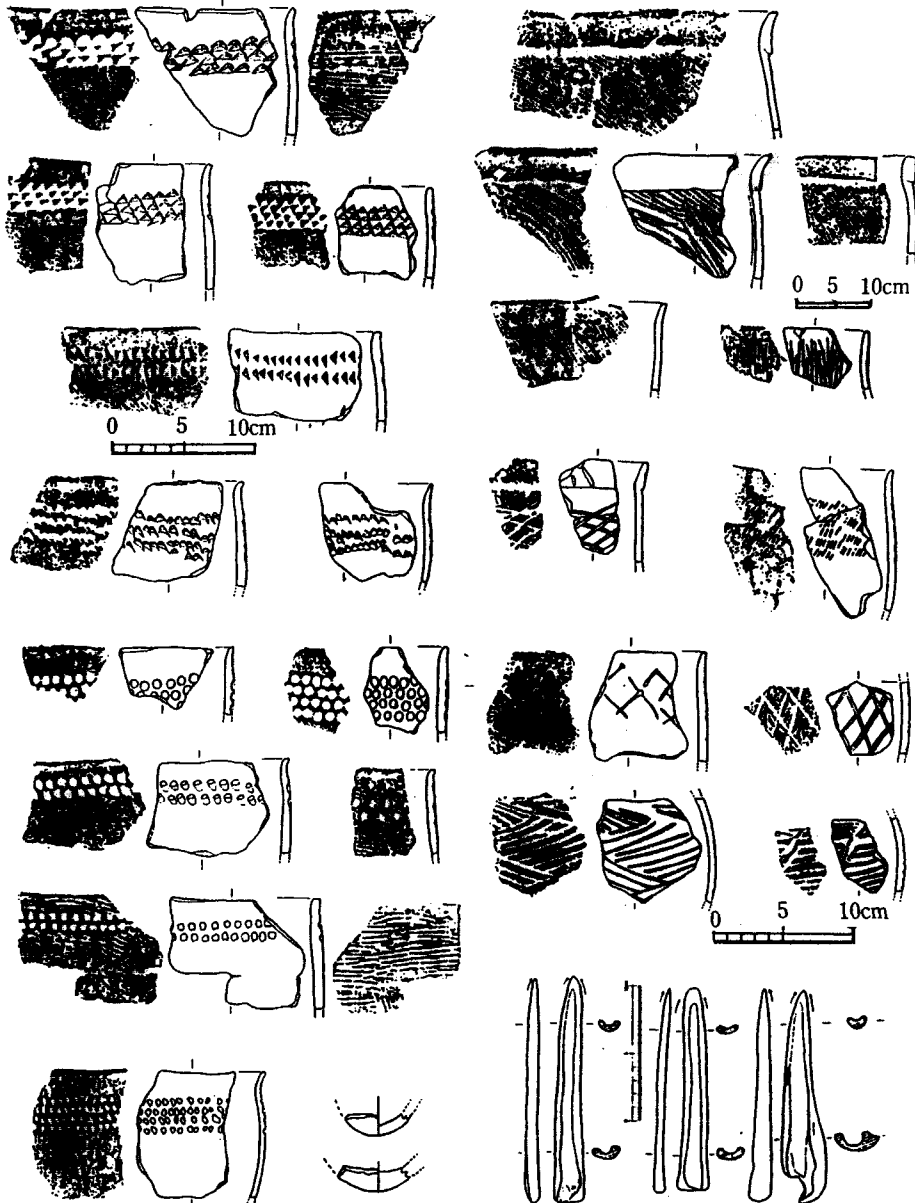


그림 14. 북촌리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편 및 골각기

으로 파악된다.

점렬무늬는 그 모양에 따라 삼각점렬, 원형점렬 그리고 기타 점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각점렬무늬는 조각칼처럼 끝부분이 삼각형을 이루는 施文具를 비스듬히 눌러 만든 것으로, 이 중에는 시문구를 세로로 하여 누른 것 및 가로로 하여 누른 것, 그리고 삼각무늬 자체가 정연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것이 있다. 원형점렬 무늬는 둥근 막대모양의 시문구를 수직으로 눌러 시문한 것이 기본이나, 이를 비스듬히 눌러 무늬 자체가 타원형으로 변형된 예도 있다. 삼각 및 원형점렬무늬 이외에 눌러 찍힌 무늬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살짝 훑듯이 찍어낸 점렬무늬토기편도 있다.

그릇 두께는 대체로 0.6-0.8CM 정도로 얇은 편이며, 흑갈색을 띤 것이 많은 태도는 주로 제주도 현무암의 자갈한 모래가 섞인 점토 성분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연부 압인 점렬무늬토기는 동해안 지방에서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유행하던 형식이나, 그 지방의 토기는 바닥이 거의 전부 평평한 것이 북촌리 토기와 다르다. 또한 점렬이 2-4줄 있는 예는 보이나, 북촌리 토기처럼 정연한 삼각형 혹은 원형 점렬 또한 보이지 않는다.

(b) 二重口練土器 : 전체 器形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토기의 포탄형·半卵形이면서 구연부가 이중으로 된 겹구연 형식으로, 일부 굵은 모래가 섞인 예도 있지만 대체로 고운 점토 토질 성분이고 그 두께는 0.6-0.8CM 정도이다. 이러한 형식의 토기는 부산 東三洞·金谷洞·巖南洞과 김해 水佳里·凡方里 및 양산 新巖里, 거제 山達島 등의 경남 해안지방 및 전남 黑山島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sup>25)</sup>

이 이중구연토기에 대해서는 평남·황해도 지방의 팽이형토기 영향을 받아 제작된다는 설과 경남지방에서 自生했다는 설 두가지가 있으나,<sup>26)</sup>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곳을 살펴보면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남 및 경남 해안지방의 남해 해양문화권의 특징적인

토기라는 사실이다.

(c) 기타 토기 : 북촌리 유적에서는 앞서의 두 형식에 속하지 않는 토기 예가 있는데, (ㄱ) 직립구연에 무늬가 압인수법으로 장식된 것 (ㄴ) 툭날같은 조갯날을 연달아 눌러 물고기뼈 모양의 무늬를 만든 동체부편 (ㄷ) 스킨듯이 그은 수법으로 만든 斜格子 무늬의 동체부편 (ㄹ) 구연부에 조각도같은 시문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일렬의 점렬무늬를 장식한 토기 등이 있다. 대체로 이들 형식의 토기도 남해안 지방의 김해 수가리, 부산 금곡동 패총 등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d) 기타 유물 : 이 유적에서는 현무암계 갈돌, 갈판 등의 석기유물도 보이나, 주목되는 것은 사슴다리뼈를 세로 쪼개고 갈아서 만든 긴 주걱 모양이 모두 15점 수습되었다. 길이는 15.5-17CM, 폭 2.7-3.6CM로, 둥그스름한 날 모양의 끝을 이용하였는데, 주걱지 바닥과 주위에 동물뼈와 함께 많은 양이 쌓인 조개껍질로 보아 조개 채취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실한 용도 추정에는 금후 과제이다.

② 청동기시대·철기시대(1)·철기시대(2) :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유물은 적은 양이 발견되어 그 거주인의 규모가 작고 단기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로 조질무문토기와 마연토기 두종류가 있는데, 심발형의 순수공렬토기와 골아가리토기가 있다. 상모리 토기처럼 공렬은 전부 바깥에서 눌렀으며, 두께는 0.6-0.9CM 정도이다 (그림15).

마연토기는 두께 0.4CM의 흑갈색 작은 단지모양의 토기로 짧은 목에 밖으로 벌어진 구연부를 갖고 있다.

철기시대(1)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적 많은 양의 광지식 무문토기 파편이 打捺 무늬토기편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는 완형으로 복원되는 예도 있다.

완형으로 복원되는 토기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광구의반구연무문토기항아리로 그릇 높이는 22CM 정도이다.

또한 철기시대(2)에 속하는 적갈색 경질의 심발형토기 파편도 상당량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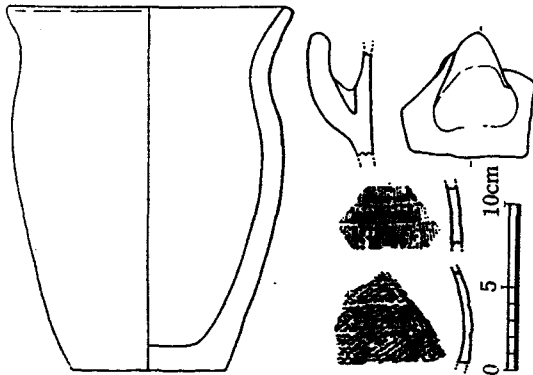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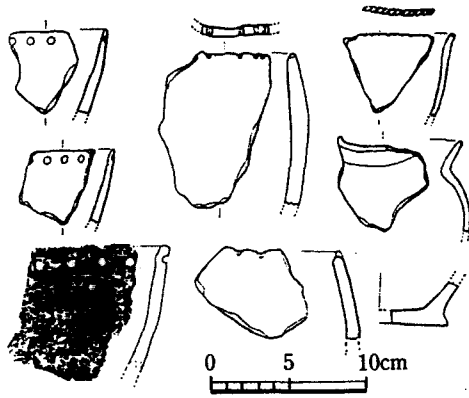


그림 15. 북촌리 바위그늘 주거지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1) 출토유물

3 중문동 바위그늘주거지<sup>27)</sup>

A. 유 적 (그림16·17)

이 유적은 서귀포시 중문동 천지연 폭포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 서쪽편에 형성된 해안절벽에 있다. 유적 주변 곳곳에도 바위 그늘 주거지 출토유물과 동시대의 토기편들이 산포하고 있다.

유적의 정면은 남쪽 바다로 트이고 아아취 모양의 입구 너비는 8.6M, 높이는 1.3-1.7M 정도로 안쪽까지의 깊이는 2M 정도이다.

바닥에는 낙반석과 자갈한 잡석 및 모래가 덮여 있었으며, 그 퇴적층의 두께는 50CM정도로 그 속에 유물이 혼재하여 있다.

B. 유 물 (그림 9)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조개껍질과 함께 토기·석기 및 철기편이 수

점 출토되었다.

토기편은 철기시대(2)의 적갈색 경질의 심발형토기와 타날무늬 도질토기 형식이고, 석기로는 횡단면이 반원형인 현무암재 갈돌편이 있었으며, 철기2점은 강철제품으로 추정되는 바 혹시 후대에 속하는 유물인지도 모르겠다.

4 예래동 바위그늘주거지<sup>28)</sup>

A. 유 적 (그림18·19)

이 유적은 서귀포시 예래동과 색달동의 경계를 이루는 한천의 하천계곡 서쪽 절벽에 있다. 이 하천의 서쪽 절벽 구릉지대에 동시대의 유물산포지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고, 앞서의 색달동 동굴유적과 직선거리로 1KM 안쪽이다.

유적이 자리잡은 해안 절벽은 계속 바위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역력하고, 현재 남아 있는 바위그늘의 형상과 바닥의 퇴적상태로 보아 원래는 훨씬 규모가 큰 것이라는 추정은 쉽게 할 수가 있다.

현재 유적은 동쪽으로 트이고, 전면 길이 3.5M, 안쪽까지의 길이 2M, 천장높이 1.5M이다.

유적바닥에 쌓인 퇴적토층의 지표상에서 완형의 적갈색 경질 심발형토기 1점이 발견되었으며, 토층은 70CM 내외로 목탄층이 혼입되어 있는 것이 잘려나간 단면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B. 유 물 (그림 9)

이미 유적의 많은 부분이 잘려 나갔으므로 출토유물의 양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었으나, 완형의 토기 1점이 발견되어 이 유적의 편년적인 위치를 구명할 수가 있었다. 동 토기는 입지름 10.7CM, 바닥지름 12.7CM, 높이 18.1CM, 두께 0.7CM로서 전체기형이 심발형을 이루며, 바닥을 따로 만들어 동체부와 접합한 수법 등이 괘지패총 3·4지구출토 철기시대(2)의 赤褐色 硬質 深鉢形土器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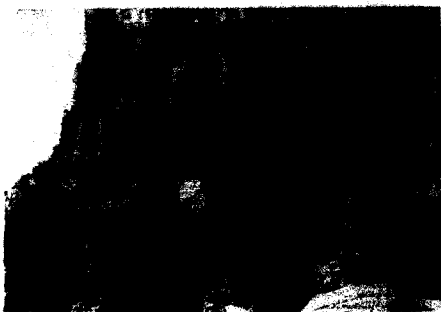


그림 16. 중문동 바위그늘 주거지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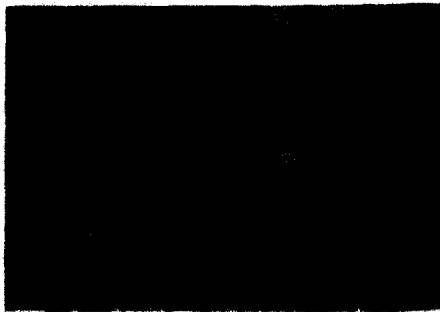


그림 17. 중문동 바위그늘 주거지 근경



그림 18. 예래동 바위그늘 주거지 주변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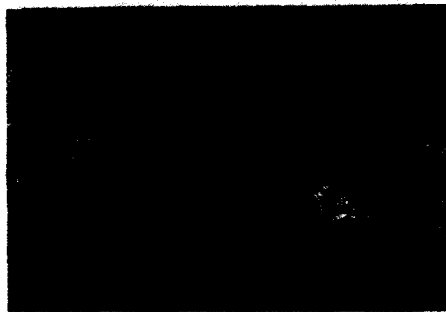


그림 19. 예래동 바위그늘 주거지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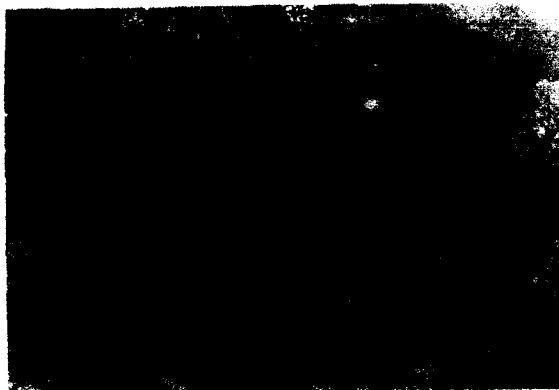


그림 20. 하례리 바위그늘 주거지 주변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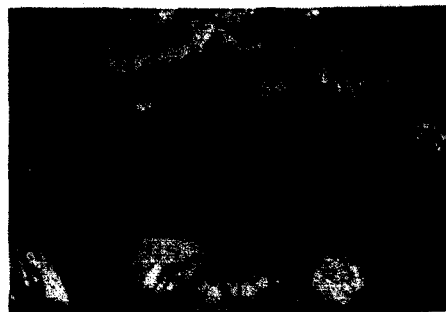


그림 21. 하례리 바위그늘 주거지 전경

5 하례리 바위그늘주거지<sup>29)</sup>

A. 유 적(그림20·21)

서귀포시 下孝洞과 남원읍 하례리의 경계 하천의 孝禮川의 동편 낭떠러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안에서 거리 1KM, 해발 45 M의 위치에 있다. 하천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바위그늘주거지로 유적의 정면길이 7.5M, 높이 4M, 입구에서 안쪽 끝까지 5.3M 길이의 규모로, 트인 방향은 북서쪽을

가리킨다.

바닥에는 천정에서 떨어진 돌과 냇돌이 깔려 있는데, 요즈음에 와서도 이곳 마을 사람들이 여름에 빈번히 이용함으로 해서 당시의 생활만 혹은 원상의 퇴적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

A. 유 물(그림 9)

바닥의 돌무더기층 곳곳에서 수집된 유물은 대부분이 석기이며, 토기편은 적은 양만 수집되었다. 토기형식은 철기시대(1)의 괘

지식 무문토기의 두터운 태토를 가진 것이다.

석기는 양끝을 타격면으로 이용하고, 몸통옆으로 두줄의 홈이 나 있는 특징적인 공이와, 둥근 원판형 자갈돌 앞뒷면을 움푹 들어가게 한 홈돌 그리고 횡단면 반원형의 현무암계 갈돌이 수집되었다.

## 6 한남리 바위그늘주거지<sup>30)</sup>

### A. 유적 (그림22·23)

이 유적은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1리의 해안 일주도로에서 북쪽 산간으로 3.5KM 정도 올라간 구릉지대에 있다. 해안에서의 직선거리가 3.5KM 정도로 거의 빌레못 유적과 같은 거리로 내륙으로 깊숙히 들어간 유적이며, 유적 인근에 작은 규모의 乾川이 있다.

유적은 용암이 경사면을 흘러내리다가 식어 주름진 곳에 턱이 지면서, 빈 공간이 마련된 곳에 형성되었다.

유적의 정면은 아아취모양을 이루고 있으



그림 22. 한남리 바위그늘 주거지 주변경관



그림 23. 한남리 바위그늘 주거지 근경

며, 정면길이 3.5M, 높이 1.65M, 안쪽까지 깊이는 2.3M이다. 트인 방향은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고, 바닥에 용암 암반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천정에서 떨어진 낙반석이 깔려 있었다.

### B. 유물 (그림9)

유적 바닥에서 적은 양의 조개껍질 및 동물뼈와 토기 및 골각기가 수집되었다. 토기편은 철기시대(2)의 적갈색 경질 심발형토기의 구연부편과 바닥편으로 골각기는 동물뼈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다듬은 것이고, 이 밖에 뼈에 손질을 가한 흔적이 보이는 동물머리뼈도 수집되었다.

## 종합고찰

제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임이 빌레못 동굴유적 및 천치연 유적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으나, 보다 확실한 것은 금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구명될 일이다.

신석기시대의 줄문토기문화계통 유적이 북촌리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이 유적과 유사한 형식의 토기와 골각기 유물이 한들굴유적에서 나왔다. 이로써 신석기시대에 사람이 제주도에 거주했었고, 그 주민은 한반도 남해안지방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것임이 특히 북촌리유적 토기문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방사선탄소연대자료가 없어 아직 확실한 연대추정을 할 수가 없으나, 남해안지방의 연구성과 및 절대연대자료를 통해 그 제주도 신석기문화 연대는 후기신석기시대인 B.C.2,000-1,0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동기문화가 들어 온 증거를 아직 밝혀지 못했고, 초기철기시대(B.C.300-0)에 해당하는 한반도지방의 문화유형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제주도에 있어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시대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청동기시대의 전기무문토기로 알려진 공렬토기문화가 상모리·용담동·꼭지리·

동명리 등지에서 확인이 되었으므로 잠정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를 설정할 수가 있다.

특히 상모리유적에서 팽이형토기 문화와 복잡한 공렬토기문화가 확인되고 그 중 일부가 태토 성분으로나 토기형식으로 보아 제주도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명됨으로써, 이 시기 제주도주민은 남한 지방에서 유입된 이주민 집단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그리고 이 유입된 토기문화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제주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바, 그 절대연대는 남한지방에서 청동기시대말에서 초기철기시대에 걸치는 B.C. 300-200년 전후로 이해된다.

제주도의 다음 시기는 육지부의 원삼국시대 및 고분시대에 비견되는 철기시대(1) 철기시대(2)로 문헌상으로는 州胡시대 耽羅國시대이다.

철기시대(1)을 대표하는 제주도 유적·유물은 산지향 출토 신의 왕망패 화폐유물, 용담동 웅관유적 및 한식철제유물, 광지패총 등으로, 이 시기가 되면 해안지방의 많은 지역에 유적이 형성된다.

그리고 다음 철기시대(2)는 전시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것임이 광지패총 3·4지구의 발굴결과를 통해 알 수 있고 이 단계에 남한지방의 도질토기 문화도 적극 유입된다.

그리고 유적의 분포지는 전 시대와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개략적인 철기시대(1), 철기시대(2)의 절대연대는 300-600년으로 추정되나 보다 확실한 것은 금후의 과제이다.

우리나라 다른 지방의 경우 동굴 혹은 바위그늘 주거지 유적은 구석기시대에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석기시대 이후의 것은 드물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신석기시대 후기 유적으로 춘천 交洞<sup>31)</sup>·부산 金谷洞<sup>32)</sup> 규척이 있고,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평북 의주 美松里<sup>33)</sup> 유적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그중 부산 금곡동유적만이 처음부터 주거지로 이용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석기시대 이후의 주거지로 움집형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두만강 대동강·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촌락을 이루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발굴조사된 예가 극히 적어 단성시비 말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러한 유형의 주거지가 신석기시대에도 성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북촌리 바위 그늘주거지의 경우 출토유물의 양으로 보나, 유구의 상황으로 보아 계절적이고도 일시적인 주거지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장기거주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동기시대에 와서도 동굴·바위 그늘유적에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보이는 것은 북촌리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출토유물은 전후 다른 시기의 유물에 비해 아주 빈약하였고, 이 시대 공렬토기문화는 오히려 상모리 등지의 야외유적에서 대량 확인된다. 따라서 동굴·바위 그늘주거지는 이 시대에 아주 짧은 기간의 거주지로 이용되었으리라고 추정되고, 대신 장기적인 주거지로 야외주거지가 어떤 형태로는 본격적으로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철기시대(1)에 이르면 앞서도 말했듯이 제주도 해안지방 및 부속도서에까지 유물산포지유적이 급증하고 있어 촌락이 곳곳에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동굴 및 바위그늘유적에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이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 발견에는 전시대보다도 훨씬 확대된다.

그것은 지질·지형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방에 비해 월등히 많은 동굴·바위 그늘이 그자체가 좋은 은거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주거지로서의 이용은 다음 철기시대(2)에도 계속된다.

그러나 이때는 제주도에 촌락이 발달했으므로 이 유형의 유적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일시거주지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장기거주지로서 사용된 것은 드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생활여건이 불리한 내륙 소규모

바위 그늘주거지인 한남리·은평리 등지의 유적은 더욱 그러하리라 보는 바, 자연유물 및 인공유물의 줄토량이 작은데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철기시대(2) 혹은 탐라국시대의 동굴 혹은 바위 그늘주거지에 대한 내용은 문헌 기록에도 보인다. 즉 중국 宋나라때 1060년경<sup>34)</sup> 區陽修 등이 지은 <新唐書 東夷傳 儋羅國條>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龍朔初에 儋羅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와 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어서 입조하였다. 그 나라는 신라의 武州 남쪽 섬에 있고, 풍속은 질박하고 비루해서 옷은 개나 돼지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는다. 집은 여름에는 풀로 해인 집에서 살고, 겨울에는 굴속에서 산다. 땅에서는 오곡이 나지만 땅을 가는데는 소를 부릴줄 모르며, 쇠스랑을 만들어서 땅을 판다.

이러한 문헌기록은 앞서 동굴 및 바위그늘이 계절적인 일시주거지로 이용했을 것이라는 고고학적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굴실에서 살았다는 기록을 전혀 믿지 않거나, 혹은 굴실 거주가 제주도에서 이 시대까지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거주형태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참고문헌

- 1) 李清圭, 1986, <제주도유적-선사유적지표조사보고>, 제주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 2집.
- 2) 鄭永和, 1974, "구석기시대 穴居유적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6집, PP. 151-156.
- 鄭永和, 1977, "제주도의 고고학적 조사-신 발견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9집, PP.131-136.
- 鄭永和, 1984,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고학적 측면", 탐라문화 3집, PP.13-48
- 鄭永和, 1986, "한국의 구석기", 한국고고학보 19집, PP.63-103.
- 3) 文基善, 1973, "제주도 무문토기문화 연구", 제주대논문집 5집.
- 4) 아직 보고서 未刊이며, 개략적인 내용이 문헌 1)에 소개되었다. PP.13-28.
- 5) 鄭永和, 1984,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고학적 측면", 탐라문화 3집, PP.13-48
- 6) 金元龍, 1987,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PP. 60-70
- 7) 李清圭, 1987, "제주도 토기에 대한 일고찰", 탐라문화 6집, PP.117-139.
- 8) 李白圭·李清圭, 1985, <곽지패총>, 제주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1.
- 9) 李清圭, 1987, "제주도 상모리 무문토기에 대한 일고찰", 三佛 金元龍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1, PP.329-356.
- 10) 李清圭, 1985, "제주시 용담동 분묘유적 조사개보", 한국고고학연보 12집, PP.18-20.
- 11) 梅原末治·藤田亮策, 1974, <朝鮮古文化綜鑑>1, PP. 57-59.
- 12) 李清圭, 1985, "제주도지방의 초기철기성격과 무문토기문화의 전개", 한국고고학보 17·18집, PP.13-40.
- 13) 주 7)논문.
- 14) 李清圭, 1985, "제주도 지석묘 연구(1)-북제주군 매월읍 공령리 지석묘군", 탐라문화 4집, PP.25-74.
- 李清圭, 1984, "광령리출토 석기와 김해식 토기", 제주도연구 1, PP. 47-96.
- 15) 보고서 未刊이며, 문헌 1) PP.100-103, 109, 111에 개략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16) 1984년 발굴내용은 주8)문헌 참조. 1985년 발굴보고서는 未刊이며, 주1) PP. 64-71에 개략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17) 주 7)논문.
- 18) 주 2)문헌.
- 19) 주 1)문헌 PP. 28-31 및 주 5)문헌.
- 20) 주 5)문헌.
- 21) 주 1)문헌. PP.41-42.
- 22) 주 1)문헌. PP. 34-35.
- 23) 주 5)문헌.
- 24) 주 4)문헌.
- 25) 鄭澄元, 1982, "남해안지방의 즐문토기 연구(1): 부산·경남지방 晩期 즐문토기의 검토". 釜大史學 6집, PP. 1-38.
- 26) 上同論文.

- 27) 주 1) 논문. PP. 34-36.  
28) 주 1) 논문. PP. 32-33.  
29) 주 1) 논문. PP. 36-39.  
30) 주 1) 논문. PP. 39-41.  
31) 金元龍, 1963, “춘천 交洞 철거유적과 유물  
교동문화의 성격과 연대”, 역사학보 20.  
32) 金廷鶴·廷澄元, 1980, <금곡동 率里패총 :  
暗陰住居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 유적조  
사보고 3집.
- 33) 김용간, 1963, “미송리 동굴유적 발굴보  
고”, 고고학자료집 3집.  
34) “龍朔初有僑羅者 其王儒李都羅 追使人朝 國  
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犬家皮 夏居  
草室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  
杷土”

---

(Received: November 26, 1987)